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가톨릭마산

사순 제5주일



용서하는 사랑은 모든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율법 학자와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을 스승(요한 8,4 참조)이라고 부르면서 접근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은 허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잡혀온 한 여인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 던진 질문은 모세의 율법을 놓고 끝없이 탁상공론을 즐기는 그들이 평소에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어리둥절하게 하여 백성들 앞에서 무안을 당하거나 아니면 후일에 이단이나 그릇된 가르침으로 고발할 수 있는 대답이 나오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고방식을 잘 모르고 있던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예수님께서 소승적 법리론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했음이 틀림없습니다. 직업 종교인인 그들은 율법의 조항은 다 지켰지만 그 율법의 정신, 그 목적, 그것의 참된 의미는 전혀 살리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느님과 결합시키는 유대였습니다. 그들은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표로 율법을 지켜야 했으며 아울러 다른 사람을 사랑할 의무도 졌습니다. 법적으로 부정을 타게 하는 모든 것을 쫓고 억제하고 재를 지키고 하더라도 이것들이 사랑의 표가 아니고 단순히 외적 행동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사 참여와 대·소 죄에 대한 교회법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표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가톨릭 신자가 되는 것을 십계명과 교회법을 지키는 것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모든 법규만을 재주껏 지키는 기술만 있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복음에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것은 아주 적극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사람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음에 거슬리는 일은 항상 있습니다. 사려 깊지 않게 행동한다든지 이기심을 내세운다든지, 다른 사람의 실수로 인해 생기는 성가신 일들이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우리에게 막연하게 추상적인 방법으로 하지 말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사랑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읽을 때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소극적인 것으로 돌려 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적극적인 것입니다. 사랑은 참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랑은 친절하고 이해하며 남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며 타인의 잘못을 너그럽게 보고 몇 번이고 제한 없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 본질적인 것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사랑하라, 그리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행위에 자신을 완전히 봉헌하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듯이 우리도 서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정홍식 마르코 신부 | 남성동본당 주임

주일 진레

제 1 독 서	이사 43,16-21
화 답 송	◎ 주님이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제 2 독 서	필리 3,8-14
복 음	요한 8,1-11

사랑(2)

그리스도교의 핵심 사상인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을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외국어도 물질명사도 아니면서 순수 우리말이지만, 추상명사抽象名詞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추상적인 개념을 형상화形象化하여 그 뜻을 알게 한다.

사랑을 의미하는 몇 가지 비유가 있다.

첫째, 사랑은 모양이 없는데도 하트heart인 심장心臟으로 표시한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거나 선물을 줄 때, 심장 모양으로 장식한다. 이때 심장은 사랑을 뜻한다. 심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다. 몸의 중심에 위치하면서 혈액순환을 통해 신진대사新陳代謝의 원동력이 된다. 그래서 우리 몸의 심장이 힘차게 뛰면 건강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큼 허약해진다. 또 심장이 멎으면 죽게 된다. 그러므로 심장은 우리의 생명과 죽음, 즉 생사生死의 척도이다. 사랑을 이러한 심장에 비유하니, 그것은 사랑이 인간 삶에 몸의 심장과도 같다는 것이다.

둘째, 사랑은 색깔이 없으나 빨강으로 그린다.

빨강은 희망, 정열, 봉사를 뜻한다. 그리고 빨강은 피의 색깔과 같다. 따라서 사랑, 빨강, 피는 같은 속성을 가진다. 피도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몸 밖으로 실어나를 뿐 아니라, 신진대사의 매개체이다. 또 출혈出血은 패배를 의미하며, 수혈輸血은 삶을 의미한다. 그래서 '피 봤다'라고 하면 패배와 굴복을 나타내고, 지속적인 출혈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다. 이처럼 사랑은 인생에서 피처럼 중요하다는 말이다.

셋째, 사랑은 먹는 음식도 아닌데 사랑의 맛이 달콤하다고 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처럼 늘 감미로움을 느끼게 해준다. 거꾸로 사랑이 없는 자들의 삶은 모래나 쓴 약을 입에 넣을 때처럼 곱고 쓴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는 같이 있고 싶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는 같이 지내고 싶지 않다.

또 사랑에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다.

첫째, 사랑은 측량할 수 없다. 그 양과 무게와 크기를 잴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가 쓰는 말에는 '바다보다 넓고 깊은 사랑', '하늘보다 높고 큰 사랑'이 있다. 또 사랑의 최고 한계를 드러내는 말로 '이 생명 다하도록', '이 한목숨 다 바쳐서'가 있다.

둘째,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 때문에'라는 단서가 있거나 어떤 조건을 붙인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네가 무엇을 해주었으니까 나도 너에게 해준다'라고 했을 때, 내가 해주는 일은 사랑이 아니라 보답이 되는 것이다.

셋째, 사랑은 주는 것이고 베푸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도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는 주고받는다give and take고 하지, 받고 준다고 하지 않는다. 주고 베푸는 일도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넷째, 사랑은 '너' 중심적인 삶이다. '너와 나'라는 관계에서 '너'가 없는 나의 사랑, '나'가 없는 너의 사랑은 있을 수 없다. 나 혼자만의 짝사랑도 '너'가 있기에 가능하다. 그러므로 사랑은 너에 대한 나의 배려이며, 나보다 너를 위해주는 마음이나 행위를 뜻한다. '나' 중심적인 삶은 개인주의나 이기주의자가 되게 한다.



최봉원 야고보 신부(교구 총대리)

함께 걷는 여정인 시노달리타스 이해하기 ⑤

마산교구 시노달리타스 위원회

Q. 시노달리타스는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A. 시노달리타스가 ‘함께’라는 측면을 강조한다고 해서 민주주의나 다수결 같은 의사결정 방식이나 권 한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즉, 교회의 의회주의 형식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노드 정신을 살아 가는 태도는 경청과 대화, 소통과 친교를 지향합니다. 투표 결과에 무조건 따르는 다수결 대신 식별 과 수용의 방식을 택합니다. ‘결정에 도달하려는 작업은 시노드적 과제이고,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 는 직무적 책임인 것입니다.’(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시노달리타스 69항)

시노달리타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식별’입니다. 교회 구성원이 함께 결정했 어도 그 결과가 하느님의 말씀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면 시노드 정신에 의한 결정이라고 할 수 없 을 것입니다.

Q. 시노드를 방해하는 유혹이나 걸림돌은 무엇이 있을까요?

- A.** 1)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는 대신 우리 스스로 이끌고자 나서는 유혹
2) 나의 관심사에만 집중하려는 유혹
3) 갈등과 분열의 유혹
4) 시노드를 일종의 회의나 부속 단체로 치부하려는 유혹

이런 유혹과 더불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시노드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세 가지 생각들을 조 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1) 형식주의: 시키니까 마지못해 형식적으로만 하는 것
2) 지성주의: 시노달리타스를 학문이나 연구 대상으로만 삼는 것
3) 부동의 자세: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Q. 시노달리타스 교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평신도의 참여를 가로막는 ‘지나친 성직주의’의 유혹을 피하고, 교회 구성원들 각자의 역할에 충실 하면서 동시에 시노드의 목적인 복음화를 위해 함께 만나고, 대화하며, 경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 노드 정신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교회 구성원들의 참여를 끌어내며, 그들의 목소리가 존 중받고, 경청되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상호존중과 상호협력의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번 시노드를 통해 ‘각자는 다른 이를 경청하고, 모든 이는 성령을 경청’하자고 권고하십니다. 시노달리타스 교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교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풍랑 속의 고요

김용태 마태오 신부/ 대전교구

“신부님, 세상의 어두운 면은 보지 말고 좋은 면만 보고 좋은 생각만 하세요! 세상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신부님이 걱정돼서 그래요. 신부님 마음속에 분노와 어둠이 아니라 평화와 빛이 쌓이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얼마 전 인터넷 매체를 통해 이 시대 정치, 검찰, 사법, 언론의 잘못과 그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 그리고 그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어떤 분이 내게 해주신 말씀이다. 불의를 고발하고 그에 맞서는 것이 세상에서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분노와 어둠을 쌓는 일이란단다. 나를 위해 해주시는 말씀이라는데 그분이 제발 나를 위하지 말고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종종 나에게 어떤 경우에도 동요되지 않는 ‘부동심’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세상에 난리가 나고 사방에 비명이 가득해도 동요되지 않고 평온할 수 있는 것이 마치 도통한 사람의 달관한 모습인 양 생각하는 거다. 이러한 생각은 언뜻 그럴듯해 보인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속담처럼 극한의 상황에서도 동요되지 않는 부동심은 사회생활에서 대단히 유용해 보이고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는 이순신 장군의 말씀처럼 속사정을 드러내지 않는 ‘포커페이스’가 전쟁 같은 세상살이에서 매우 적절해 보인다. 그러나 세상의 어둠과 그 어둠 속에서 신음하는 이들의 고통에 아랑곳하지 않고 평온하게 살아가도 그런 삶이 정말 올바른 것일까? 아니, 어찌 그럴 수 있을까?

앞서 언급한 그분은 마음의 평온에 이르기 위해 세상의 좋은 면만 보고 좋은 생각만 하라고 나에게 충고한다. 도대체 어떤 분인가 궁금해서 그분이 SNS에 올리신 사진과 글들을 찾아보았다. 여행지의 아름다운 풍경, 분위기 있는 카페,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시, 애완동물 등등, 그분 말씀대로 거기에는 세상의 좋은 면과 좋은 생각들로만 가득 차 있었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암울한 일들에 대한 내용은 단 하나도 없었다. 문득 베스트셀러 작가로 유명하신 어느 스님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 스님도 이렇게 말한다. “자기 삶의 내용이 풍요롭지 못하면 정치 이야기나 연예인 이야기밖에 할 이야기가 없게 됩니다. ...내 삶의 내용이 알차면 남 일에 거품 묻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삶의 내용을 풍요롭고 알차게 하는 방법으로 독서, 봉사활동, 어학 공부, 운동, 미술, 악기, 뮤지컬 관람, 여행, 피정 등을 권했다. 과연 TV에 비취진 그 스님의 삶과 살림살이는 그들과 구김살 하나 없는 ‘웰빙’과 풍요 그 자체였다.

이렇듯 세상의 좋은 면만 보고 좋은 생각만 하며 좋도록 사는 것, 얼핏 그럴듯해 보이기는 하지만 정말 그런 아니란 생각이 든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말들을 하지만 그렇다고 꼭 좋은 게 옳은 것은 아니지 않나! 그냥 편하게 생각하라고 말들을 하지만 편한 게 선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 창밖 어둠 속에서 외마디 비명이 들리는데 창문 닫고 커튼 치고 폭신한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음악을 듣는 것이 어찌 평온함일 수 있나! 세상에 온갖 불의와 부정과 중상과 모략이 난무하는데 나 혼자 눈 감고 귀 막고 입 닫고 있다 하여 그것이 어찌 고요함일 수 있을까! 정치에 무관심하고 남의 일에 상관 안 하면서 자기 생활에만 열중하는 것이 어찌 풍요로운 삶일 수 있나! 그런 것들이 어찌 어둠에서 벗어나 빛 속에 머무는 삶일 수 있는가!

예수님은 그런 식의 평온함을 당신이 초대하시는 평화와 구분하신다(루카 19,42; 요한 14,27 참조). 예수님의 평화는 그늘 하나 없고 구김살 하나 없이 밝고 따뜻하고 말쑥한 그런 평화다. 오히려 수난과 죽음 한가운데에서 꽃처럼 피어나는 그런 평화다(요한 20,19 참조). 좋은 면만 바라보고 좋은 생각만 하는 데서 오는 평화가 아니라 세상의 더럽고 그늘진 곳에 비치는 한줄기 햇살 같은 평화요 고뇌와 번민 속에서도 기도하고 고통 속에서도 삶의 끈을 놓지 않게 만드는 그런 평화다. 아무도 없는 산 위에서 누리는 평온함이 아니라 산 아래 처절한 십자가의 현장 한가운데에서 구현되는 그런 평화인 거다(마르 9,2-10 참조).

이와 같은 예수님의 평화는 ‘풍랑 속의 예수님’(마르 4,35-41 참조) 모습 안에서 그 면면이 잘 드러난다. 호수 한가운데서 거센 돌풍이 일어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인데도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평온히 주무시고 계신다. 제자들은 말한다.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마르 4,38)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더러 잠잠해지라 명하시니 바람은 멎고 호수는 고요해진다.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마르 4,40)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초대하시는 평화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예수님의 평화란 풍랑이 무서워 호수로 들어가지 않고 육지에만 머무는 그런 평온함이 아니라 풍랑 한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고요함이라는 사실이다. ‘풍랑 속의 고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초대하시는 참평화의 모습이다. 세상의 어둠을 바라보지 않는 데서 오는 편안함이 아니라 어둠 속으로 들어가 그 어둠 속에서 신음하는 이들과 함께 빛을 바라보는 삶, 그 고된 삶 안에 함께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평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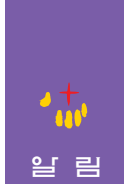
결국 평화의 실체는 우리 안에 계신 하느님이다. 하느님 없이 아무리 평온해도 그것은 평화일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하느님 없이는 아무리 눈부셔도 그것이 빛일 리 없으며 차고 넘치게 풍요롭다 한들 그것이 충만함일 수 없다. 우리가 비록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주님께서 함께 계시면 그 자체가 곧 평화요 빛이며 충만함이 아니겠는가(시편 23,1-6 참조)!

그렇다면 평화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거나 문제를 멀리함에서 오는 평온함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한가운데에서도 이루어낼 수 있는 믿음의 열매요(마르 4,40 참조) 문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느님의 뜻을 받드는 의로운 삶의 결과다(이사 32,15-20 참조). 정녕 “어리석은 자들의 눈에는 의인들이 죽은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말로가 고난으로 생각되며 우리에게서 떠나는 것이 파멸로 여겨지지만 그들은 평화를 누리고 있다.”(지혜 3,2-3)

순교자들을 떠올려보라! 그들이 불쌍해 보이냐? 천만에, 오히려 부럽다! 평화는 그런 거다. 제발 나를 위한답시고 내게서 평화를 앗아가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출처 : 월간 생활성서





교구 사목 방문

일시: 4월 5일(화)
본당: 수산/ 용잠

일시: 4월 7일(목)
본당: 합천/ 산청

교구/본당

성직자 모역 성묘

일시: 4월 4일(월)
장소: 고성 이화공원묘원

예비신학교, 여학생 예비성소 모임

일시: 4월 10일(주일) 13:30
장소: 교구청

위원회/기관/단체

마산가정상담센터 이용 안내(무료상담)

상담시간: 월~금 09:00~18:00
내용: 가정폭력(부부갈등, 외도), 데이트폭력, 스토킹, 가족문제, 다문화가족문제 등
방법: 전화, 내방, 방문, 서신, 온라인 상담
위치: 마산역 앞 가톨릭여성회관(2층)
문의: 055·296·9126/ 297·3288
카페: cafe.daum.net/magapok
▶상담내용과 내담자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기 타

성골롬반 외방선교회 평신도 선교사 관심자 모임

일시: 4월 10일(주일) 14:00~17:00
장소: 평신도선교사센터(성신여대 입구역 1번 출구)
대상: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24~40세 신자

문의: 010·3817·0567, columban.or.kr

제주 성이슬 자연순례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서 갖는 평화로운 '쉽'과 재충전의 시간

일시: 4월 19일~21일/ 4월 24일~26일/
4월 30일~5월 2일/ 5월 6일~8일/
5월 10일~12일/ 5월 16일~18일
대상: 개인, 가족, 일행, 본당단체 구반장
문의: 02·773·1455, 064·796·4182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과정

원서접수: 4월 30일(토) 우편접수가능
내용: 가톨릭신학 26과목을 통신(우편)으로 공부
대상: 가톨릭교회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학력제한 없음)
문의: 02·745·8339, http://ci.catholic.ac.kr

재속 프란치스코회 생태영성 특강 안내

일시: 개강-4월 9일(토)
매월 둘째주 토요일
장소: 칠암동성당 대성전
대상: 신자 및 비신자
주제: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영성
주관: 재속 프란치스코회 경남지구
문의: 010·5230·1420, 010·5006·6254

재속 맨발 가르멜회 마산 가르멜산 성모 공동체 회원 모집

일시: 모임-5월 16일(월) 10:00
장소: 진동 가르멜 수도원
대상: 만 55세 미만 신자
문의: 010·8525·1150

나자렛예수수녀회 피정 및 교육

피정: 성경(말씀)피정, 전례(기도)피정
교육: 실천 교리 교육, 첫영성체 교리 교육
(인성, 신앙)
장소: 나자렛예수수녀회 본원 피정의 집

대상: 개인 또는 20명 이내 단체
(코로나 중식 전 5명 이내)

문의: 010·2133·4903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시: 매주(수) 14:00~21:00
장소: 마음의집(창원시 도계동)
대상: 신자, 일반인
내용: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성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분
상담자: 강윤철(요한 보스코) 신부
정신보건전문상담사자격 보유
(한국상담학회·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
문의: 010·3551·2038

+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권우(펠릭스) 신부, 최진우(아드리아노) 신부의 부친 최한식(요한 보스코)님의 장례에 기도로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비와 여러분의 기도가 유가족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유가족 일동 -

농아선교회 후원회원 모집

교구 가톨릭농아선교회(담당사제: 정홍식 마르코 신부)에서 후원회원을 모집합니다.

후원계좌: 경남은행 207-0131-8513-06
예금주-마산교구천주교회(농아선교회)
문의: 이정선(베로니카) 010·9207·8856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원하는날(미리연락)	원하는 곳	010·9353·1773(우 노아 수녀)	대상: 수도생활과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미혼여성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상시	원하는 곳	010·6608·3217(김종관 미카엘 신부)	ofmkvocation@gmail.com

■ **제주성지 순례 3일/ 4일**
매주 화요일, 금요일 출발

■ **한국성지 167 완주**
6. 6.(월)~9.(목) 인천·의정부교구 4일
7. 4.(월)~7.(목) 대구대교구 4일

미카엘여행사 010.8650.9690

가톨릭마산
교구보배너 광고
신청받습니다

■ 문의: 홍보국 055.249.7072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자롱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트래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무화과잼, 귤잼 410g
(포도잼은 9월 말부터 구매 가능)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 수녀원 직영 쇼핑몰
<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010-2652-0706

주식회사 바른
도막형바닥재(관급자재 전문)/ 도장공사
칼라무늬콘크리트/ 벽화 및 디자인

주식회사 바른
(경상남도 전역시공 및 현장설치)
김가수 베드로 문의: 010-5055-0076

가톨릭 우리농 직매장
유기농산물 · 유기농식품 전문점
창원시 중동중앙로 47 어반브리스 상가 1층
055·266·7010

시에나 캄포광장

시에나

유시연 레아 소설가/ 가톨릭문인회

어느 도시이든지 가장 큰 성당을 바실리카 두오모 성당이라 부른다. 시에나 두오모 성당은 피렌체 두오모만큼이나 규모가 크다. 연한 분홍, 녹색, 흰색, 검정색, 자주색 대리석으로 지어졌는데 내부가 더 화려하다. 피렌체에 숙소를 두고 주변을 돌아보는 중에 고대도시 지미그냐노를 알게 되었다. 아침을 거르고 기차역으로 향한다. 일방통행 길이라 택시 잡기가 어려워 빠른 걸음으로 20여 분, 산 지미그냐노에 가기 위해서는 포지본시에서 환승을 해야 한다. 토스카나 지역의 마을과 주택 건물이 멀리 능선을 타고 형성되어 있다. 구릉지대에는 올리브, 밀, 유채, 포도 같은 농작물이 잘 가꾸어져 있는데 농민들이 직접 저 너른 농지를 가꾸는지 혹은 외국인 노동력을 쓰는지 궁금해진다. 고대도시 산 지미그냐노 중심 광장에 자리한 각진 돌탑이 몸체에 잡초를 키워낸 채 침묵의 시간을 견디며 이방인을 맞아준다. 단체 여행자들에게 끼어 성곽 꼭대기에 올라갔더니 토스카나의 구릉지대가 첩첩이 포개어져 주름 잡히듯 펼쳐져 있다. 드라마 신사임당 배경으로 나오는 토스카나 지역은 기름진 토지와 상업, 은행업을 배경으로 이웃 도시와의 경쟁으로부터 견고한 위치를 확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300여 년의 바람은 돌벽과 건물을 쓰다듬으며 부침의 흔적을 간직하고, 편안한 색채로 웅크린 마을의 지붕에는 비둘기가 티를 잡아 살고 있는 정경이 소박하게 시선을 잡아끈다. 광장 계단에서 로만칼라 신부에게 축복을 청한다. 주저 없이 성호를 긋고 축복하는 젊은 제임스 신부는 멕시코에서 온 부모와 여행 중이라고 했다. 로마 홀리 하우스에 한국인 형제들이 있다며 귀국 전 아침미사에 오라고 주소를 알려준다. 어느 곳 어느 도시에나 오랜 세월을 지켜 온 성당이 있다. 지미그냐노에는 성 어거스틴 대성당 안 유리관에 아쏬파 성녀가 썩지 않은 육신으로 누워 있다. 수도복을 곱게 입고 두 손을 앞으로 모은 아쏬파 성녀의 얼굴위로 시간이 멈춰 있다. 움브리아의 아시시와 토스카나 지역에서 가톨릭 성인이 많이 나왔는데 그런 배경 때문일까. 이번 여정에는 썩지 않은 성인들을 많이 본다. 성녀 키아라, 아쏬파, 말가리다... 그들을 모셔두는 것은 예수 재림 신앙과 깊은 관련이 있는 듯하다. 예수 재림 때 온전한 육신으로 부활하리라는 믿음이 있다고 본다. 따가운 지중해의 봄별이 온몸에 파고든다. 햇별을 피해 그늘에 들어서면 금세 냉기가 스며들며 추위가 에워싼다. 추위에 떨다가 계단에서 햇빛을 쬔데 애리조나에서 온 두 여자, 제인과 주디가 말을 건다. 나란히 앉아 따뜻한 별을 쬔다가 사진을 같이 찍는다. 저녁 해가 기운다. 오래 걸어서 다리가 아프고 피곤하다.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틈에 비집고 들어가 새치기로 버스를 기다리는데 눈 밝은 청년이 뭐라고 하며 뒤에 가서 서란다. 할 수 없이 맨 뒤로 돌아갔더니 줄이 더 길어졌다. 직행이나 완행이나 버스 비용이 같다. 아시시에서 기차를 타고 페루자로 이동할 때 넓고 편하게 가고 싶어서 1인 4유로쯤인가 더 주고 퍼스트 클래스, 일등석을 끊었는데 일반석이나 일등석이나 똑같았다.

기행 에세이집 『이태리에서 수도원을 순례하다』에서 발췌

하느님의 손가락

수정 성모 트라피스트 수녀원

자신의 행위가 사실 여부 관계없이 많은 이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폭로되고, 사람들의 지탄과 멸시, 비방과 조롱, 비웃음을 당하는 일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타인과의 관계 맺음 속에 살아가는 인간이기에 죄의 유무, 경중을 떠나 이러한 일을 겪는 고통과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경쟁자를 올라미에 걸려 넘어뜨리기 위해 가짜 뉴스를 유포하고 공격하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지는 작금의 풍토와 이런 일을 저질러 신문이나 매스컴에 자주 오르내리는 인물들 중에 사람이라면 당연히 느끼는 어떠한 죄책감이나 수치심도 없이 오히려 더 당당하고 뻔뻔한 이들이 적지 않음을 보는 것은 참으로 슬프고 아픈 현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당신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 현장범을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워 놓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 앞에 있습니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요한 8,5)

진퇴양난, 사면초가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십니다(요한 8,6- 참조). 당신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한 것을 두고, 히에로니무스는 “지금 여자를 고발하는 자들과 또한 죽을 운명으로 태어난 모든 이의 죄를 땅에 기록하고 계셨던 것이 분명하다”고 말씀하시고, 가경자 베다는 “과거에 당신 손가락, 곧 성령의 작용으로 돌에다 율법의 십계명을 쓰신 분이 당신임을 알려 주시려는 뜻이었습시다. 율법이 돌에 쓰인 것은 적절했습니다. 완고하고 반항적인 마음을 복종시키도록 주어진 것이 율법이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를 이용하여 예수님을 공격하는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 그리고 그 상황을 마주한 예수님. 이 같은 예는 우리 매일의 일상,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도 자주 직면하는 적나라한 현실이고,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이 뿌리 깊은 분열이 결국 타인과 사회의 분쟁으로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과 분쟁, 폭력과 전쟁들이 나와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가슴 아프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에서 일으킨 전쟁으로 전 세계가 긴박하게 움직이는 이 고통의 현실에서, 오늘도 당신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시는 예수님께서서는 그 옛날 이집트에서 먼지를 모기로 만드신 하느님의 권능(탈출 8,15), 돌로 된 두 계약의 판인 법(신명 9,10), 벨사차르 임금의 심판(다니 5,5),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신 사랑(요한 8,6), 하늘과 땅을 창조(시편 102,26)하신 하느님의 능력임을 우리에게 상기시키십니다.

세상의 죄를 없애려 오신 당신의 사명을 이루시고자 예루살렘으로 오르시는 주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된 성주간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 수정 성모 트라피스트 수녀회 원고는 이번 호로 마칩니다.
그동안 집필해 주신 수녀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